

[광주 방문의 해] 해맞이 명소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이 새해 소망을 기원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출·일몰 명소와 해맞이 행사를 소개한다.

추천 명소는 최근 감성 조망 명소로 주목받는 서창 감성조망대를 비롯해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국립공원, 도심 속 조망 명소인 금당산과 사직공원 전망타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송정역 등이다.



무등산일출

숫구치는 붉은말 기운으로 희망 가득 새해를

◇ 노을빛 영산강 감성명소 '서창 감성조망대'

서구 서창포구 인근에 조성된 '서창 감성조망대'는 영산강의 너른 물길과 황금빛 역사가 어우러진 일몰 명소다. 해 질 무렵 강물 위로 번지는 노을과 하늘빛의 변화가 인상적이다. 2층 구조의 현대적인 조망 데크는 '인생샷'을 남기기에 최적화돼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유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새해 첫날 해맞이·떡국 나눔 행사 풍성

새해 첫날인 1월1일에는 광주 곳곳에서 해돋이와 떡국 나눔 행사가 열린다.

▲동구 너릿재 체육센터를 비롯해 ▲서구 금당산 인공폭포 광장 ▲남구 월산근린공원 ▲북구 무등산 원효분수 앞 ▲광산구 어등산 등에서 해맞이 행사와 떡국 나눔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새해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등산전망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감성명소 눈길

광주시는 어등산 전망대, 영산강·황룡강 합류부 산책로, 푸른길공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감성 명소로 주목받는 장소들도 새해 일출·일몰 감성지로 추천했다.

어등산 전망대는 비교적 완만한 산행으로 접근할 수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볍게 오르는 일출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정상에서는 광산구 도심과 영산강, 날씨가 맑은 날에는 무등산 능선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남구 사직공원 전망타워는 빛의 숲 야간경관과 어우러진 일몰명소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무등산 실루엣과 도심의 불빛이 새해를 맞이하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광산구와 북구 일대의 영산강·황룡강 합류부(두물머리)인 산동교 친수공원도 '물멍·노을멍 명소'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강물 위로 비치는 붉은 노을과 하늘 풍경이 어우러지며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광주 도시를 가로지르는 푸른길공원 일부 구간은 무등산 방향으로 시야가 트여 있어 해 질 무렵 노을과 산 실루엣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카페 방문 후 가볍게 들릴 수 있는 위치 덕분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일상 속 노을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해맞이·해넘이 관람 때 기상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방한용품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산행 때

는 지정된 탐방로 이용과 야간·새벽 시간대 개인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 시민 모두에게 역동적이고 희망찬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서창 감성조망대를 비롯한 광주의 일출·일몰 명소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일상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새해 첫날 무등산·금당산·어등산 오르며 '작심 새다짐' 다사다난 2025 시름 내려놓고 물멍·노을멍으로 힐링을 ACC·사직공원, 포토존 눈길...SNS 감성명소도 입소문 해맞이 산행 팬 기상상황 미리 알고 안전수칙 꼭 준수

◇ 호남의 기상을 품은 웅장한 시작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은 매년 새해 첫날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대표 해맞이 명소다. 해발 1187m 무등산의 서석대와 입석대 위로 떠오르는 일출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장관으로 손꼽힌다.

입산은 새벽 4시부터 가능하며, 중머리재·장불재·서석대 등 다양한 등산 코스가 마련돼 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방한 장비, 헤드랜턴 등 안전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광주시는 월호사·증심사 지구를 중심으로 탐방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해 탐방로 점검과 질서

◇ 연말연시 대표 포토 명소

광주송정역 광장에서는 '12월 가장 예쁜 역 축제'가 열려 내년 1월 중순까지 경관 조명이 운영돼 광주의 관문을 겨울 명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일원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대형 경관 연출과 포토존이 운영된다. 예술극장 앞에 건물 전면을 가득 채운 조명과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 2026)' 문구가 어우러진 대형 연말 포토존이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끈다. 또,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문화박물관 로비에는 초대형 캐릭터 포토존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빅더포토존(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에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우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권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피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 중도금 무이자 +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영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영 GS 건설 | (주)한화/건설 | HDC 현대산업개발